

2021년 4월호(제 196호)

소중한사람들

풀

4월은
온갖 꽃들의 축제다.

나의 눈과 마음은
갖가지 신비한 빛
황홀한 꽃향기에 빠져 있다.

전혀 눈길을 받을 수 없는
그 곳에 네가 홀로 있구나.

바람 따라 허리를 깊숙이 굽히고
어제도 없이
내일도 없이
오직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누나.

세차게 바람이 분다.
바람은
너의 가녀린 허리는 꺾을 수 있어도
흙 밑에 촘촘히
엉겨 붙은 너의 뿌리는
더욱 넓게 퍼뜨릴 뿐이다.

사람들이 너를 밟아도
너는 반항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산을 지키고
강을 지키고
하염없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

시. 유정옥

발행인 유정옥

[소중한사람들] 주소 04502 서울 중구 중림로 8길 12 · 전화 02-365-9106 · 팩스 02-365-9104 · www.ppp.or.kr

[소중한사람들힐링센터] 주소 경기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 전화 010-7195-3045 · www.pphealing.com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 15:26)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막 10:27)

암환우는 낫는 것이 사명이요 사역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예배

군대를 다녀온 후 나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목회가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실제적인 생활에서 먹고 자는 삶에 이상이 생긴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는 늘 빛이 있고 어머니는 그 빛 때문에 힘들기에 반드시 장남인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목회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비록 성도의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하며 목양하였습니다. 어떤 성도가 기도로 부탁한 것은 때로는 목회자로서 부모님이 직접 해결해 줘야 할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50여명 남짓하여도 늘 바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온 후가 가장 교만하고 악한 때였다 생각합니다. 당시 교회에서 섬기던 전도사님 중 한 분에 대해서 분노를 드러낸 사건이 그 당시의 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나는 설 사이 없이 일주일 내내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살인적으로 감당했으며 교회에 와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사례비까지 받는 전도사님은 아무 것도 안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제가 인도하던 성경공부 모임 시간에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일 형제, 성가대 연습 후 간식 쓰레기 좀 치워주시지요”

지휘를 맡았던 성가대 연습 후 대원들이 놓고 간 간식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다며 성경공부 모임 시간에 지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조금 소통에 부족하시긴 했지만 저는 마음속에 안 그래도 ‘아무 것도 안하는 인간이라며 마음속에 가졌던 화의 불씨’가 순식간에 폭발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도사님의 멱살을 잡으며 “당신이 치우면 되잖아!”라며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인간을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님은 저를 가장 교만하여 곧 부러질 것 같던 그 시기에 부르셨습니다. 저에게 다시 목회자의 꿈을 갖게 하셨습니다. 제가 인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금세 교만 병이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겸손케 하시고 저에게 자유를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가 목회를 세우겠다는 강한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그 열정이 오히려 내 마음 속에 모든 것에 있어서 불평과 시비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저렇게 설교를 하실까? 그러니 성도들이 안 모이지

‘어머니는 왜 밤마다 인일여고 홈페이지에 글을 쓰겠다고 저러고 있을까?(이 글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수 있어서 행복하다” 책이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설교하고 힘을 다하는데 학생들, 청년들이 모이지 않을까?’

저의 20대 후반은 그 분노가 일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바쁘고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 오시면 한 사람씩 붙들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당신의 일처럼, 사랑하는 아들의 일처럼, 존경하는 엄마의 일처럼 도우십니다. 그래서 늘 지금도 바쁘십니다. 이제야 목회의 한 단계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저의 부모님의 목회의 바쁨은 한 사람을 위해 온 힘을 다하시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고 저의 바쁨은 제 안에 너무 많은 나의 교만과 의가 저를 바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암 환자를 돌보는 이곳 청평에서는 성도를 더 많이 채우는 것도 목표가 아니고 제 스스로 더 높은 명예를 얻는 것도 목표가 아닙니다. 이곳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버티고 이겨 마침내 치유되게 하는 것이 목표이지요. 청평에서 영적으로 얻은 제 개인적인 가장 큰 수확은 ‘한 사람을 위한 목회’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이태원에서 레스토랑을 하시던 집사님의 요청으로 매주 월요일 오전에 그 가게에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레스토랑을 오픈하시고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 몹시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저는 집사님의 마음이 예수 안에 잘 세워지시도록 몇 달을 계속 그 분 한 분을 위해 예배했었습니다.

“목사님, 가게가 잘 되고 안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곳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다 것을 깨닫게 하시네요.”

또 어떤 날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직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직 가게가 재정적으로 안정화되지 못했는데, 예배하는 가운데 집사님은 영적으로 자리를 확고히 잡고 있었습니다.

최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기억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매일을 함께 기도해 주고 예배함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다시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제가 꼭 세우고 싶은 사역은 바로 기도하지 못하는 한 영혼 한 영혼과 함께 매일을 기도하며 제 삶의 열정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암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날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찾아 만나고 그의 아픔과 고통에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즈음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내 가슴에 깊이 들어옵니다.

글 / 이성일 목사



▲ 나물캐는 아낙네들



▲ 노숙인전도



▲ 두릅과썩개기



▲ 봄이오고 있어요



▲ 부활절성만찬식



▲ 부활절을 맞이하여



▲ 새우구이의참맛



▲ 성경통독을 마치고



▲ 세례식축하해요



▲ 신나는봄소풍



▲ 전도폭발예배



▲ 전도폭발훈련



▲ 최영희성도세례식



▲ 트레킹으로 체력단련



▲ 행복한 외출

무엇을 위하여 쓰임 받는가?

새해가 밝자마자 그 분이 나를 찾아왔다. 코로나 때문에 1년여를 재택근무를 한 후유증 때문이었다. 우울과 불안감에 휩싸이는 것은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고통이라. 나는 그의 삶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했다. 그분과 합심해서 기도하는 동안 그의 불안은 평안으로 바뀌었고 성령의 은혜로 삶의 감사와 행복을 찾았다. 그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자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직장 동료들과 지인들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날부터 그는 자신의 이웃들을 데리고 나에게 오기 시작했다.

나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를 그분의 시간으로 정하고 그 분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만났다. 하나님은 그 분이 누구를 데리고 오던지 찾아온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는 더 큰 사명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회사를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믿음의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세계적인 회사인데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문화가 만연히 들어와 있다고 가슴아파했다. 그러나 그는 회사라는 큰 덩어리에 놀리지 않고 사명의 걸음을 시작했다. 회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돌이키면 언젠가는 회사 전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아무리 큰 회사라도 그 안에 담겨진 사람이 회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니까 말이다.

그렇게 시작된 회사 직원들의 영혼 구원 계획은 매주 진행되어 갔다. 그러던 중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그의 회사 대표가 나를 만나고 싶어 했고 나를 만나 방언 받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녀는 혹시 화상으로 상담이나 기도가 가능한지 물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무소 부재하시고 더구나 대표에게 방언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4월3일 토요일 오후 3시로 대표와의 상담시간을 정했다. 나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우선 그 대표가 한국말을 못하고 나는 영어를 못하니 둘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난점이고, 또한 단 둘이 화상으로 마주했을 때 어색함을 이기고 그 사람이 방언을 할 수 있게 될 것인가? 그 대표가 방언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자. 만약 하나님이 이 시도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막으실테니... 아마 인터넷이 잘 안될 수도 있어. 나는 컴퓨터에 문외한이니... 아니야! 그 대표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이니 스케줄이 변경될 수도 있지... 그런데 그는 어찌 준비성이 많고 세밀한 사람인지 일주일 전에 우리 센터에 인터넷 상태를 상세히 점검하는 것이었다. 당일 날도 미리 일찍 와서 다시 점검하는 것이다.

드디어 오후 정각 3시가 되자 그의 회사 대표가 화상에 나타났다. 잠시 그가 대표와 나의 간단한 소개를 하고 자리를 떠났다. 나는 무척 어색했다. 하지만 어차피 그와 나는 언어로 소통될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편했다.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다. 성령께 그의 입술을 맡길 수 있기를 나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가 방언 받기를 기도하며 도왔다. 그렇게 화상 앞에서 서로가 기도한지 30초쯤 지났을 때, 그에게서 방언이 폭발적으로 흘러 나왔다.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방언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두 말을 높이 들고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는 신비한 성령 체험에 상기되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흥분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 자신의 아내에게도 자신처럼 기도해 달라고 했다. 또한 그의 회사 직원들이 소원하면 자신과 같이 화상으로 만나주고 기도해 주고 방언을 받도록 도와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얼마든지 도와 줄 수 있다고 했더니 그는 펴듯이 좋아하며 어린아이처럼 웃었다.

그의 회사 직원들- 전 세계에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화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한 여직원을 통해 회사에 대한 꿈을 갖게 하시고 토요일마다 동료들을 데리고 오는 수고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적인 회사에 성령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이다. 나는 화상이라는 수단을 사단이 가져다가 악하게 쓰임 받기에 좋아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영혼구원을 위하여 선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알고 무엇을 위하여 쓰임 받는가?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영혼구원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어서 우리는 그저 "예!"만 하고 순종만하면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쓰임 받는가?

글/유정옥

2021년 3월 청평 소중환사람들교회 헌금

●천사헌금● 이현미(1,000,000) 변영록(1,000,000) 황보순(100,000)	이주영(1,000,000) 최명자(1,000,000)	이은주(1,000,000) 김성곤(1,000,000)	최해진(1,000,000) 김동원(1,000,000)	손현이(1,000,000) 김주희(1,000,000)	송문희(1,000,000) 이가경(1,000,000)	윤용주(1,000,000) 신현규(1,000,000)
●십일조● 강성림(50,000) 신현숙(100,000) 정혜실(10,000)	권분희(40,000) 이상일,박선인(300,000) 정훈기,박효정(270,000)	김미행(100,000) 이영환(200,000) 최명자(100,000)	만안나(130,000) 이인순(200,000)	박광수(110,000) 이태희(20,000)	박근래(35,000) 이황희(30,000)	변영미(100,000) 이희숙(50,000)
●감사헌금● 강성림(30,000) 권의자(50,000) 김영애(20,000) 박광숙(100,000) 송기승(30,000) 윤순남(100,000) 이상일,박선인(200,000) 이진순(60,000) 최영애(50,000) 허재건(200,000) 김미희(100,000) 상정윤(20,000) 이한나(50,000) 목회지원센터(100,000)	고혜옥(100,000) 김남이(50,000) 김유미(60,000) 박선인(292,420) 신현규(100,000) 윤애일(5,000) 이양복(10,000) 이희숙(200,000) 최명자(70,000) 황옥남(60,000) 김영림(100,000) 손영옥(50,000) 조옥선(20,000) 서울서교회(100,000)	구민정(20,000) 김미행(1,200,000) 김진숙(1,000,000) 박애경(30,000) 신현숙(200,000) 윤채환(1,100,000) 이영림(50,000) 전옥교(50,000) 최영희(300,000) 황지훈(2,000,000) 김정관(100,000) 유선정(100,000) 최영희(10,000) 오름호스피스(50,000)	구재은(78,730) 김선아(50,000) 김현숙(1,000,000) 박효정(100,000) 안영래(400,000) 이금자(100,000) 이영림(250,000) 정중영(30,000) 최은진(100,000) 황려명(10,000) 김정림(3,000,000) 이은구(1,000,000) 최해령(500,000)	권분희(250,000) 김순정(290,000) 나영숙(212,110) 봉한석(60,000) 안은미(20,000) 이달호(50,000) 이은규(50,000) 정은영(가계)(700,000) 최은정(20,000) 강기상(10,000) 김해림,김유재(100,000) 이현옥(1,000,000) 한성원(30,000)	권유승(280,000) 김순정(300,000) 노은순아들(600,000) 상낙희(30,000) 양옥경(2,000,000) 이미라(300,000) 이인순(300,000) 조정덕(100,000) 최정임(180,000) 공은영(30,000) 민한정(400,000) 이정화(50,000) 계영산업(100,000)	권은미(550,000) 김연희,정윤호(500,000) 박광수(20,000) 소한태(10,000) 오윤자(60,000) 이미진(50,000) 이지아(60,000) 최봉관(900,000) 한창식(500,000) 김광숙(30,000) 박근희(5,000) 이태상(70,000) 국회기도회(50,000)
●CMS헌금● 권태준(10,000) 김현정(200,000) 소희남(60,000) 정은경(10,000) 한진희(500,000)	김귀옥(30,000) 나치용(15,000) 윤화숙(30,000) 조남남(20,000) Ahm Ama(200,000)	김명자(20,000) 도주은(400,000) 이경희(10,000) 조영실(40,000)	김민기(50,000) 만현정(10,000) 이성림(100,000) 최은숙(20,000)	김성재(40,000) 박경미(50,000) 이혜경(50,000) 최정림(20,000)	김영신(30,000) 박완준(50,000) 장승아(10,000) 하정민(20,000)	김진영(20,000) 백소연(20,000) 정예은(5,000) 한종일(40,000)

수입·지출 보고서

수입항목	금액	지출항목	금액
십일조	1,936,000	자동차 주유비 및 운영비	1,055,819
감사헌금	26,343,266	자동차 할부금 및 보험료	466,575
천사헌금	14,100,000	식자재구입비	7,854,982
CMS헌금	2,080,000	전기요금	4,509,230
		화재보험료	1,200,000
		KT통신비	472,850
		CMS사용료	66,000
		비품구입비(소모품)	651,550
		집기구입	429,930
		안전점검비	1,242,620
		공사비	3,991,000
		급여인건비	11,885,010
		사회보장보험료	3,501,410
		차용금환급	7,000,000
금월 수입 합계	44,459,266	지출 총액	44,326,976
전월 이월금	634,435		
차입금			
총 수입 합계	45,093,701	금월 잔액	766,725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에 천사회원이 되어주세요.

암환자들의 안식과 영혼구원을 위한 심터

소중한사람들교회에서는 암 환우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 암 환우 힐링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암은 가족 한사람의 질병이 온가족의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우와 가족들을 전인적으로 돌보아 드리기를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께 인도 될 수 있도록 오직 환우와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천사회원은 후원하신 후에 성함,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010-2210-9106)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 운영사업에 천사회원이 되셔서 기도 해 주시고 후원해 주심으로 계속 동역하기를 소원합니다.

청평힐링센터 운영천사회원 3월 가입자 명단 (14명)

266. 이현미 267. 이주영 268. 이은주 269. 최해진 270. 손현이 271. 송문희 272. 윤용주 273. 변영록 274. 최명자 275. 김성곤 276. 김동원 277. 김주희 278. 이가경 279. 신현규

운영천사 회원명단

1. 이원욱	2. 최미경	3. 최명자	4. 유재선	5. 이명구	6. 김수영	7. 설종근	8. 이희수	9. 조주영	10. 단해봉
11. 박철홍	12. 정동영	13. 조현신	14. 정경석	15. 이문희	16. 박종배	17. 이종성	18. 김갑희	19. 차유옥	20. 성기빈
21. 박은희	22. 박영기	23. 박재범	24. 박순화	25. 임광래	26. 한정택	27. 이성자	28. 강은희	29. 권희규	30. 송광수
31. 김덕상	32. 윤철현	33. 전동화	34. 이혜란	35. 전미리	36. 김영신	37. 임승택	38. 장용훈	39. 이훈자	40. 오병화
41. 최수지	42. 허상익	43. 송영옥	44. 최민락	45. 정수영	46. 정지현	47. 문필자	48. 정한종	49. 정해강	50. 최숙자
51. 윤 완	52. 최명희	53. 최유은	54. 최예은	55. 박정애	56. 정동준	57. 손영옥	58. 권경희	59. 사재신	60. 이희기
61. 이원영	62. 심 형	63. 이상수	64. 박해숙	65. 이상준	66. 최수경	67. 나선미	68. 김영관	69. 천우규	70. 김대현
71. 김희정	72. 구남진	73. 이종권	74. 정동영	75. 김양숙	76. 이주열	77. 변영명	78. 배경하	79. 최수연	80. 박지현
81. 이경은	82. 이정은	83. 신성란	84. 정훈기	85. 정희창	86. 정예은	87. 박효정	88. 허영종	89. 김미원	90. 신형진
91. 변영은	92. 유성진	93. 정주성	94. 김갑희	95. 박철홍	96. 홍명주	97. 김현숙	98. 무 명	99. 유성진	100. 성낙희
101. 권홍봉	102. 황보순	103. 이화영	104. 황원아	105. 황원동	106. 황원태	107. 김현숙	108. 고금진	109. 김연희	110. 계영산업
111. 그레이스 한	112. 아이린 김	113. 이향순	114. 이동주	115. 안서영	116. 도문식	117. 김명성	118. 한은희	119. 유성진	120. 권봉도
121. 김현숙	122. 정성희	123. 박유민	124. 이한나	125. 이용옥	126. 이민자	127. 김현숙	128. 이미영	129. 조영석	130. 박치현
131. 김연희	132. 박순화	133. 안정순	134. 김태연	135. 박해숙	136. 양수진	137. 상재록	138. 김현숙	139. 오봉주	140. 이태종
141. 김대비다	142. 전지아	143. 조혜숙	144. 이방훈	145. 박해정	146. 만안나	147. 이금형	148. 윤희진	149. 윤은주	150. 최명희
151. 청평힐링	152. 김화련	153. 안정희	154. 김영숙	155. 문예은	156. 임순미	157. 고영복	158. 김미희	159. 김사라	160. 박준영
161. 박효숙	162. 이석우	163. 이순주	164. 이열리	165. 이예슬	166. 이재용	167. 이종인	168. 정동영	169. 김말란	170. 유선정
171. 이강순	172. 황옥남	173. 김희성	174. 이원경	175. 박경근	176. 김진임	177. 신진경	178. 김 영	179. 이든구	180. 문종만
181. 강인숙	182. 오정민	183. 문자현	184. 문자수	185. 이다정미	186. 이든구	187. 송희종	188. 이하늘	189. 정윤호	190. 김순애
191. 인종복	192. 이병화	193. 유광현	194. 이든구	195. 이용림	196. 안성훈	197. 박은순	198. 이희숙	199. 윤대오	200. 최금련
201. 김호년	202. 김해원	203. 장승아	204. 황보순	205. 박영대	206. 양옥경	207. 오재원	208. H	209. 박성운	210. 홍지윤
211. 이희숙	212. 권은미	213. 무명	214. 황순찬	215. 박미행	216. 유민성	217. 우짜미슈사	218. 이은주	219. 박성운	220. 도영화
221. 박순화	222. 이시은	223. 정호진	224. 김순정	225. 김옥연	226. 윤채원	227. 원적의선원재로	228. 김예송	229. 김수현	230. 김수현
231. 장관숙	232. 김숙희	233. 남원희	234. 남지영	235. 남해원	236. 김정자	237. 박선순	238. 오준석	239. 노은순	240. 이성혜
241. 최해령	242. 임계숙	243. 이승재	244. 연규홍	245. 김선경	246. 손태정	247. 이은주	248. 이인순	249. 정혜실	250. 정혜실
251. 한종석	252. 한화숙	253. 김애원	254. 박정희	255. 한경숙	256. 이기열	257. 정은영	258. 이우주	259. 이우경	260. 최영훈
261. 김미옥	262. 김동수	263. 조자영	264. 이선	265. 최영애	266. 장승아	267. 이현미	268. 이주영	269. 이은주	270. 최해진
271. 손현이	272. 송문희	273. 윤용주	274. 변영록	275. 최명자	276. 김성곤	277. 김동원	278. 이가경	279. 신현규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를 위한 천사회원(1구좌 100만 원, 분납 가능)과 씨앗헌금(자유 기부)에 참여하려면 아래 전화로 문의하고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전화 02-365-9106 | 송금계좌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한사람들교회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소나무 헌금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하여 병원에서 자기 부담금을 지불할 수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우들에게 자기 부담금을 지원해서 치료를 받게 해주는 의료헌금입니다.

2021년 03월 씨앗헌금 후원 : 김행심 10,000 공은하 30,000 공익석 30,000 윤재오 400,000 한종석 400,000

2021년 03월, 5명의 환우에게 1,184,510원을 병원비로 지원하여 환우들이 치료비 부담없이 마음 놓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나무 사역 후원 계좌 농협 351-1158-7628-73 소중한사람들교회

목요 Precious Worship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는 환우들이 면역성이 약하여 코로나 차단을 위해 외부인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목요 기도회에는 계속 되었지만 외부의 중보기도자들이 함께 하지 못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중보기도해야 하는 환우들 명단을 올려 드립니다. 동역자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권외* (담도암) - 항암으로 팔, 다리 저림이 있는데 부작용과 후유증 없도록, 항생제 부작용으로 구토가 심합니다. 구토 없이 잘 먹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2. 이인* (폐암4기 뼈전이) - 4/15일 MRI, CT, 뼈스캔, 혈액검사가 있고, 4/22일 좋은 결과 나오도록, 현재 등 부분에 통증이 자주 있는데 사라지도록, 표적치료제를 복용하여 내성이 생기지 않고 암세포만 다 소멸되며 고침 받을 수 있도록...
3. 최영* (유방전이암) - 5/1일 CT 찍는데 좋은 결과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남아 있는 모든 암이 몸 안에서 깨끗하게 사라지도록, 항암 부작용과 후유증 없이 끝까지 잘 맞을 수 있도록...
4. 양옥경 집사(난소암) - CT결과 비장에 새로운 암세포를 발견되어 새로운 항암약으로 변경했습니다. 3회 투여 기간 동안 급속한 치료가 일어나도록...
5. 최영* (난소암) - 항암부작용으로 손발 저림과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속히 회복되어 잘 걸을 수 있도록, 5/18일 CT찍는데 좋은 결과 들을 수 있도록...
6. 이달* (폐육종암) - 항암3차를 마치고 신약으로 4차 항암을 진행합니다. 항암주사 잘 맞고 항암 부작용 없이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오른쪽 가슴과 팔에 통증이 있는데 통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7. 이화* (유방암) - 4/9일 항암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건강, 시간, 상황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자기면역 주사 5일간 맞습니다. 면역력이 샘솟게 하여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8. 김진* (간전이 재발암) - 31일 철심을 뺐고, 상담결과 항암을 하기로 했는데 항암하는 동안 부작용과 후유증이 없이 주사 잘 맞을 수 있도록, 간 종양 제거 수술이후 다시 재발되는 일 없이 관리 잘할 수 있도록...
9. 강성* (유방전이암) - 매일 방사선 치료를 잘하고 있지만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걷는데 불편함을 느낍니다. 항암 부작용 없이 잘 치료 받을 수 있도록, 4/8일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호흡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말끔히 사라질 수 있도록...
10. 이미* (복막전이암) - 4월 5일 밤부터 시작된 항문출혈과 통증 멎도록, 6일 저녁부터 시작된 좌측요구리 통증과 발열의 원인이 정확히 진단하여 적절한 진료 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라기 4:2)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우리 환우들이 독수리 날개 치듯 새 힘을 얻고 또 다시 삶의 한걸음을 내딛습니다.

암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회

-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장 소 :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 말 씀 : 유정옥 사모
- 기도회 인도 : 이성일 목사

※기도모임을 함께할 재능기부자들을 기다립니다.※
(PPT 만들기/전반기타/그 외 악기연주)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유정옥사모의 설교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 되는 영상의 알림을 받으시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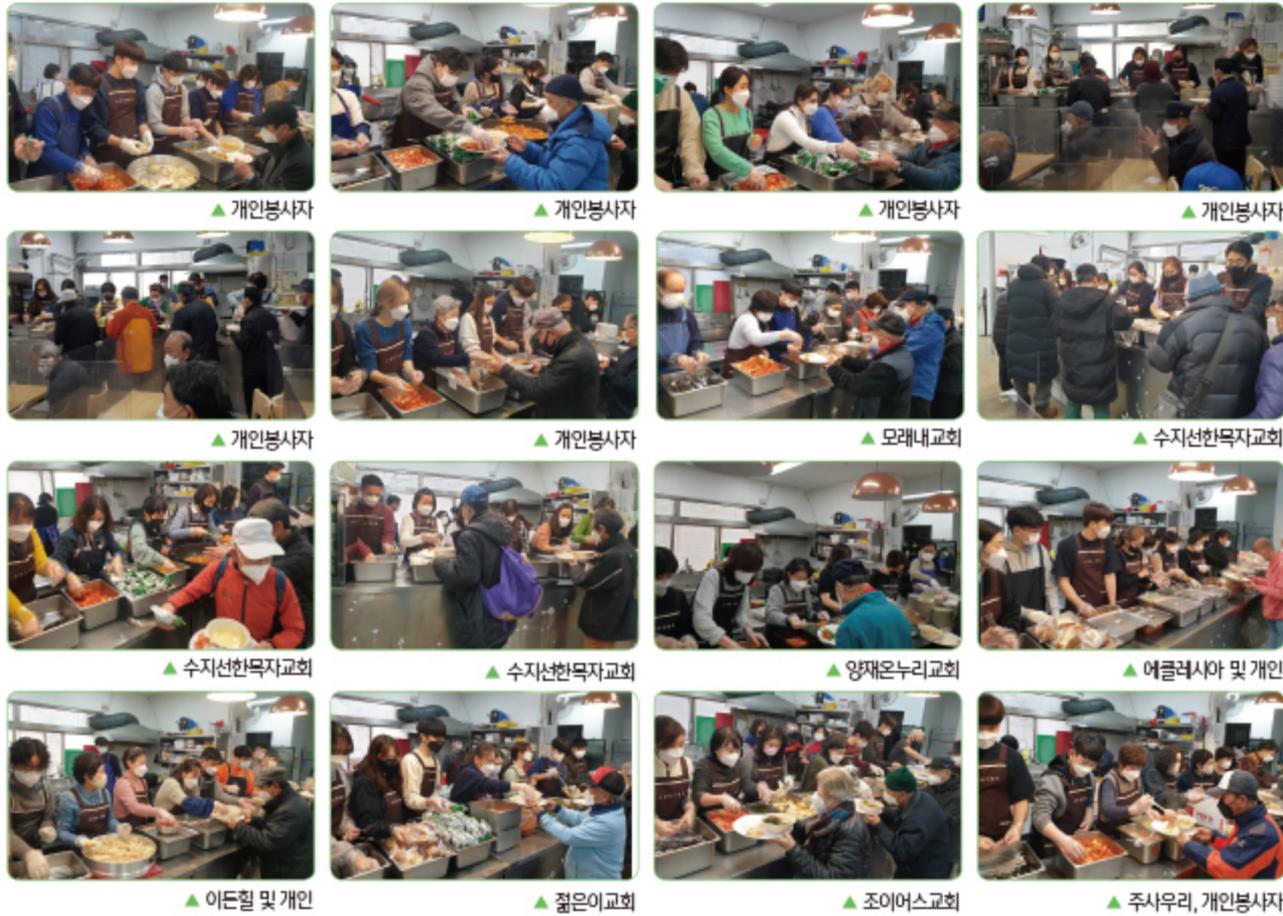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www.facebook.com/preciouspeoplehospice



Hospice Precious People
www.youtube.com/user/miholoveone

목요기도회





노숙인들이 마음 놓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세워주신 노숙인 전용 교회인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명절이나 휴일도 없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온 지 17년을 맞이 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은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도 방역의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루 300명 이상의 노숙인들에게 점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3월에는
 수지선한목자교회에서 3일, 5일, 11일, 17일, 25일, 26일을 봉사해 주셨습니다.
 2일 모래내 교회, 9일 조이어스 교회 13일 에클레시아, 16일 서빙고 은누리교회, 23일 이든힐, 27일 주사우리, 29일 양재 은누리교회 에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권경희, 권윤희, 권미희, 김성주, 김현숙, 김희숙, 김영희, 박은순, 박정숙, 박현숙, 박혜연, 서유나, 서정국, 석동신, 손수정, 신은혜, 신승규, 송연선, 여예인, 이문정, 이삼숙, 이선화, 이민경, 임경숙, 이정희, 오상준, 정은혜, 조준기, 장진영, 최금련, 최상혜, 한현희, 홍경진
 강덕희, 고금순, 김용수, 김연희, 김도영, 노정규, 박경근, 방유미, 변영미, 이한숙, 임맹자, 장종숙, 허청만, 한송희...개인 봉사자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노숙인들에게 영양있고 맛있는 밥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숙인들이 매일 예배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명임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매일 예배와 합심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난한자들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요엘, 조진영, 정기종, 이은철, 이성일 목사님과
 김재정, 이범주 교수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3월 노숙인들에게 나눔

코로나로 인한 고통과 힘들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지친 삶의 어려움속에서도 노숙인들을 위해 한가지, 두 가지 정성스럽게 만들고 다듬고 모아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물품을 매일같이 나누어 주는 나눔속에 소중한사람들 모든이들이 하나될 수 있어서 행복한 3월이었습니다.

*3월17일 청평 압환우 전도폭발팀이 노숙인분들께 복음제시를 하여 33명이 결신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월20일 30명의 노숙인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 주신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과 간호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3월27일 50명의 노숙인들에게 이발 봉사를 해 주신 수지 선한 목자 교회 이발 미용 봉사단에게 감사드립니다.

노숙인들을 위한 딸기, 참외, 천혜향, 망고, 사과등 고급 과일을 헌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압환우 인 데 매주 화요일 요양병원에서 외출하여 싱싱한 과일을 구입하여 소중한사람들에 가지고 오십니다. 병상에 있으면서 노숙인들이 맛있게 과일을 잡수실 것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힘이 난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암에서 완치되어 급식 봉사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성*님이 암에서 완치되어 노숙인들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소중한사람들 남성 심터



▲ 결핵검진



▲ 결핵검진문진표작성



▲ 생활인 투표안내



▲ 생활인큐티

심터 생활인들은 잃어버린 혈육의 가족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소중한사람들 가족인 것을 기뻐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활심터에는 3월에 이재하, 김동복님이 자활에 성공하여 LH매입임대 집을 마련하고 퇴소하였습니다.

한진엽, 한승주, 이우현 님 3명이 새로 입소하여 현재 35명이 입소되어 노숙생활을 청산하고 자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23일 자활심터 전원 결핵 협회에서 센터를 방문하여 결핵 정기검사를 시행 하였습니다. 결과는 전원 건강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심터 생활인들은 매일 오후 6시 QT를 하고 있습니다.

3월 QT 출석 시상자는 권오영, 김영동, 김창길, 노대표, 방효진, 배일근, 서성원, 이준호, 이희승, 장근영, 정길진, 조길환 님입니다.

상담 · 치유 · 봉사

선한 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 14년동안 한결같은 사랑의 손길

주님이 병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해 주신 것과 같이 14년동안 한결같이 노숙인들을 찾아와 치료해 주시는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을 기다리는 노숙인들은 마치 아버지를 만난 듯 아픈 환부를 보이며 치료를 받는다. 외상이 심한 환자는 이창우 원장님이 즉석에서 수술까지 해주신다.

매일 셋째 토요일 12시부터 진료가 있다.



중보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기도로 돕기 위해 모이는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어느덧 849회가 되었다. 소중한 사람들 사역의 종합적 기도 제목을 기도한 후 참석자 개개인의 중보 기도를 구체적으로 합심하여 기도한다. 중보기도 모임은 소중한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하기를 바란다.

중보기도제목

1. 소중한 사람들 사역

- 1) 남성 심터 생활인들이 예수 영접, 건강, 직장,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 2) 소중한사람들교회 365일 예배와 점심 나눔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 3) 진료, 상담, 사위, 이발, 의류 생필품 나눔의 공급과 봉사자
- 4) 타국인을 섬기는 소중한사람들 이주민 센터 사역을 위해

2. 소중한 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

- 1) 최고의 의료진이 동역 할 수 있도록
- 2) 암환우들의 영, 육간의 완전한 치유

3. 소중한사람들 해외사역

고아 1:1후원 양육과 무료 급식-미안마, 중국, 멕시코, 북한, 아이티

4. 아이티 사역

1) 교육 - 방과후 학교, 컴퓨터교육 2) 고아:1후원 3) 싱글맘 사역 4) 형무소사역 5) 무료진료 6) 손전등 보급

5. 치유

-신형진, 최유운, 김정신, 김진수, 최영자, 신현숙, 이미라, 권분희, 이희숙, 최영애, 이용림, 김순정, 성낙희, 양옥경, 구재은, 윤채원, 최정업, 이달호, 최영희, 이인순, 권은미, 이미진, 강성림, 최봉관, 이영광, 권유승, 김미향, 봉현석, 권외자

6. 박효정, 이제호, 이복희, 이기열, 이상철, 이희열, 김성태, 이예숙, 박영례, 김연희, 안정희, 유춘애, 김현충, 최은희, 이영숙, 김영민, 정동익, 이정화, 고혁옥, 인종복, 김미희, 박경미, 이옥경, 김우현 재발되지 않도록

7. 신형진님이 스피라자 주사맞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 앤드류 구명을 위해



후원자님들의 기도제목들을 보내주시면 중보기도 모임에서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street9106@naver.com 010-2210-9106<문자로>

소중한사람들 해외 사역

아이티

뉴저지 은혜와 사랑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세계적인 재앙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함으로 귀퉁 마을에 현대식으로 초등학교와 교회를 완벽하게 완공했습니다.

재배마을에 이어 귀퉁마을에 지어진 초등학교와 교회를 통해서 아이티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을 바랍니다.

다른 마을에도 계속해서 초등학교와 교회가 지어질 것입니다.

아이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선교사님들에 대한 악탈과 납치가 중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미얀마

소중한사람들은 2008년부터 김동호, 조현정 선교사님과 동역하여 현재 미얀마고아 후원과 초등학교 운영, 중 고등학교 건립 및 운영 후원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종칼레이 기독교 초등학교는 2015년 4월 미얀마 교육부로 공식 인가를 받고 사립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었고, 미얀마에서 최초로 인가받은 기독교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교육혜택을 받으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을 통하여 양육 받고 교육받은 고아들이 이젠 새로 들어오는 고아들을 돌보는 교사들로 일하고 있다니 불교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놀라고 또 놀랍니다.

그리고 십년이 넘는 시간을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이 사랑의 사역이 계속 되어서 수많은 미얀마 고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멕시코

소중한사람들 해외 사역



2010년 3월 멕시코 엔시나다에 인디오 원주민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천 학교 겸 고아원을 세워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인디오 원주민들은 감뽀라는 집단 농장에서 일을 하며 집단 거주를 하는데 15살때부터 아이를 낳아 한 가정에 아이가 6~10명이나 됩니다.

아이들 대부분이 교육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아이들은 매춘부나 마약딜러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멕시코 엔시나다 오벤에돔의 집에서 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2009년 11월부터 중국 도문시 애심 복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아들은 탈북자들의 아이들이거나 연변에 버려진 조선족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고아후원 사역은 한철범 원장님, 선교는 최민 선교사님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후원자님들의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북한



북한 선교를 담당하시는 김** 선교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발이 묶여서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필요한 물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 북한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통제가 풀리면 바로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 철저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북한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퍼져 가야 합니다.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적극적인 후원을 기다립니다

도서출판 소중한사람들의 첫 번째 이야기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

86쇄를 돌파한 베스트셀러!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했던 유정옥 사모의 신앙생활을 담은 에세이 고아가 된 어느 남매를 맡아 키운 이야기 생면부지의 암환자를 봉양한 이야기 먼 나라 카자흐스탄에서 복음을 전파한 이야기 등 삶의 굽이마다 펼쳐진 따뜻한 이야기들을 전해준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유정옥·정가 10,000원)

소중한사람들 아름다운 세 번째 이야기 <아가야, 우리잘해 보자>

<http://café.naver.com/orangecekpu>에서 육아고민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명의 YES24 회원이 평가한 평균별점 9.7 / 10.0
두 아이를 키우는 박선인 사모가 실제로 아이와 겪는 갈등과 어려움을 아이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감동으로 풀어가는 영롱한 이슬 같은 예쁜 이야기 글 모음이다.



<아가야, 우리잘해 보자>
(박선인·정가 12,000원)

도서출판 소중한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유정옥 사모의 두 번째 이야기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는 서울역 노숙인들 곁에서 12년간 함께 해온 유정옥 사모가 그곳에서 마주한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이야기와 자신이 살아오며 보고 듣고 느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고 두려워할 때 다시 힘을 얻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유정옥·정가 12,000원)

소중한사람들 아름다운 네 번째 이야기 <아이때문에 미치지 말자>

박선인 사모의 우리아이를 위한 예쁜 글모음, 그 두번째 내 아이를 위한 사랑과 감동의 이야기...
우리 아이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양육해 가는 세밀한 과정을 사랑의 마음으로 비추어 볼 수 있는 사랑의 이야기.
이 책은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힘들고 지친, 자존감을 상실한 어른들에게도 사랑과 힘이 될게 되는 선한 지침서와도 같은 사랑과 지혜가 담긴 글 모음이다.



<아이때문에 미치지 말자>
(박선인·정가 12,000원)

말씀 통독, 정독 및 성경 공부용 신개념 성경 <형광펜 성경1, 2, 신약>

펴낸이 <이성웅/이하나> 출판사 <하늘창고>

[형광펜 성경 1]이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묶어 8월 17일에 출간되었으며, 역대상부터 말라기까지 묶은 [형광펜 성경2]가 2016년 4월에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형광펜 성경 신약]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들은 모두 "개역한글판"으로 출간됩니다.

형광펜 성경의 표시 방법은

각 장 별로 반복되는 구절을 찾아서 다르게 표시해 주었습니다. 2~3단어의 짧은 구절은 글자 색에 변화를, 4~8단어의 구절에는 같은 색의 밑줄을, 9단어 이상의 긴 구절에도 글자 색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짧은 구절은 경우에 따라 가독성을 고려하여 표시를 생략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주어와 동사가 포함된 구절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형광펜 성경 신약]에서는 구약이나 해당 복음서 안에서 관련 구절을 찾아 복음서가 쓰인 당시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대에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찾아 그 의미를 본문 옆에 기록하였으며, 무엇보다 헬라어 원문의 뜻을 찾아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과 관련된 그림 혹은 지도를 찾아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며 율법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형광펜 성경을 통해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형광펜 성경으로 이야기를 듣듯이 성경공부를 시작해보세요.

유튜브에서 형광펜성경 하늘창고를 검색하시면 동영상 강의로 쉽게 성경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형광펜성경1 (이성웅/이하나·정가 13,000원) 형광펜성경2 (이성웅/이하나·정가 14,000원) 형광펜성경 신약 (이성웅/이하나·정가 12,000원)

티타임&바이블

<형광펜성경 오프라인 특강>

티타임&바이블은 바쁜 직장인들과 학생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한 열린 성경 모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티타임을 가지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작은 성경 카페 같은 모임이에요. 특히, 성경을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겼는데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었던 분들, 성경 말씀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궁금한 점들이 생길 때 바로바로 질문하지 못해 답답하셨나요?

티타임&바이블에서 혼자 또는 함께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담당 목회자에게 질문해 주시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티타임&바이블에 함께 모인 다른 분들과 함께 토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픈 시간에 오셔서 특강을 들으셔도 좋고 자유롭게 성경을 읽다 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더! 티타임&바이블에서는 티와 커피가 후원자들의 손길을 통해 무료로 제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오픈한 공간이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들려주세요.

* 형광펜성경 오프라인 특강일정 *

창세기 (화 오후7:30/ 강남구청역 갖피플웨딩)
야고보서 (금 오후7:00/ 공덕역 르네상스타워 2205호)
다니엘 (주일 오전 9:30/ 공덕역 르네상스타워 2205호)

◆ 일반서점, 인터넷서점, 직접주문(02-365-9106)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소중한사람들의 책 수익금은 서울역 노숙인 무료급식, 암환우 힐링 센터 의료 선교비로 쓰여 집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읽혀 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추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후원자님께 드리는 편지

흙에 묻혀있는 이름모를 생명들을 싹틔우기 위해 봄비가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호드려지던 하얀 꽃, 노란 꽃, 분홍 꽃이 진 자리에 연두색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나는 연두 꽃이 꽃 중의 꽃인 양 가장 싱그럽고 아름답습니다. 흑백이었던 천하가 총천연색으로 물들어갑니다. 가히 천상의 풍경이 이 땅에 임한 것 같습니다. 이 축제의 날에 우리의 잃어버린 희망도 기쁨도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가족 노숙인들을 저희 소중환사람들은 어제와 다름없이 17년을 한결같이 정성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동역자님들 후원자님들이 있기에 기쁘게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3월에 십일조를 보내주신

고연희 김진우, 권윤희 조준기, 김도영 이한숙, 김영진 손미나, 김용수 송연숙, 문영완 문영숙, 서화민 박재봉, 송경옥 고유미, 이성웅 이한나 임옥열 김소연 님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구명신, 김갑희 김완선, 김채완 김현숙, 나은선, 노아, 동광프리즘, 박선순, 박수현, 박창학, 박혜수, 백다솔, 백용하, 백은향, 변영미, 손선희, 송희중, 신명순, 신형진, 신혜영, 유광현, 유영재, 유정옥, 이명숙, 이선아, 이윤정, 이윤희, 이은혜, 이주열, 이주희, 이혜숙, 임나리, 임맹자, 장지호, 정형필, 조성규, 홍복실, 황정아, 홍부네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인 감사 현금을 보내주신 고금순, 김경숙, 김현숙, 백성삼, 변영미, 손미나, 이재은, 이혜숙, 임윤엽, 주영훈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현숙 백홍석, 이기열 정은영, 이성웅 이한나, 인종복 김순애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기관, 단체 현금을 보내주신 (기감)안양감리교회 (기감)수지선한목자교회 (예정)서빙고 온누리교회 (예정)베이직 교회 (예정)영락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사)온누리 약국 사회봉사회에 감사드립니다. 아이티 선교헌금을 보내주신 박서준, 신혜영, 조경숙, 한종석 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티, 미얀마, 멕시코, 중국, 북한 의 고아들을 섬기는 일에 헌금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해외에서 아이티로 직접 송금하여 아이티 선교 사역을 돕고 있는 미국 뉴저지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CMS를 통해 매달 후원해 주시는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소중환사람들 임환우 힐링센터 섬김 현금을 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후원에 힘입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앞날의 희망마저 잃고 거리에서 유리하던 노숙인들이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365일 매일 드러지는 여배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심터 생활인들은 취직을 하여 직장을 얻고 저축을 하며 자활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티, 미얀마, 멕시코, 중국, 북한 등 열악한 환경에서 부모 없는 고아들이 희망과 꿈을 키우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임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하여 헌금을 보내주신 손길을 통하여 임환우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받고 있습니다. 환우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암에서 치유받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소중환사람들 사역을 위해 힘에 겹도록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후원자님들의 사랑의 수고로 이 모든 사역을 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들이 겪고 있는 가족 간의 관계가 화목되고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온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법적인 울무에 갇혀 있는 분들이 승리하여 완전히 해방되기를 기도합니다.

신형진님이 스피라자 주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청평 소중환사람들 임환우 힐링센터에 입소해 있는 임환우님 최영자, 신현숙, 이미라, 권분희, 이희숙, 이용림, 김순정, 성낙희, 양옥경, 구재은, 윤채원, 최정임, 이달호, 최영희, 이인순, 권은미, 이미진, 강성림, 최봉관, 이영관, 권유송, 김미향, 봉현석, 권외자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소중환사람들 임환우 힐링센터에서 암을 치유 받은 박효정, 이계호, 이복희, 이기열, 이상철, 이희열, 김성태, 이혜숙, 박영례, 김연희, 안정희, 유춘애, 김현충, 최은희, 이영숙, 김영민, 정종익, 이정화, 고혜옥, 인종복, 김미희, 박경미, 이옥경, 김우현님이 재발되지 않도록 암에서 완전히 해방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17년을 한결같이 소중환사람들과 동역해온 후원자님들에게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을 후원자님들께 선물하는 소중환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소중환사람들 유정옥 드림

3월 후원 물품내역

후원일	후원자	후원물품	후원수량	사용일	사용내역	사용처	사용수량	재고
3/5	푸드뱅크	빵	4박스	3/6	아침간식	거리노숙인	4박스	0
3/5	푸드뱅크	떡	1박스	3/6	아침간식	거리노숙인	1박스	0
3/8	푸드뱅크	빵	2박스	3/9	아침간식	거리노숙인	2박스	0
3/8	푸드뱅크	떡	1박스	3/9	아침간식	거리노숙인	1박스	0
3/9	이성혜	오렌지	8박스	3/10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8박스	0
3/9	목3중 롯데마트	바나나, 치즈	각3박스	3/9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각3박스	0
3/11	우전화	도넛	2박스	3/13	아침간식	거리노숙인	2박스	0
3/11	노아	돼지고기	100kg	3/12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34kg	66kg
				3/13,14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각33kg	0
3/11	노아	소고기	20kg	3/15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20kg	0
3/11	노아	불고기용돼지고기	50kg	3/16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25kg	25kg
3/12	푸드뱅크	빵	2박스	3/13	아침간식	거리노숙인	2박스	0
3/12	푸드뱅크	떡	1박스	3/13	아침간식	거리노숙인	1박스	0
3/15	푸드뱅크	빵	5박스	3/16	아침간식	거리노숙인	5박스	0
3/15	푸드뱅크	떡	1박스	3/16	아침간식	거리노숙인	1박스	0
3/15	이든힐	쌀20kg	5포대	3/16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3포	2
				3/17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2포	0
3/17	이성혜	참외	8박스	3/18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8박스	0
3/17	청평힐링센터	떡	6박스	3/17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6박스	0
3/19	푸드뱅크	빵	4박스	3/20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4박스	0
3/19	푸드뱅크	만두	1박스	3/20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1박스	0
3/22	푸드뱅크	빵	4박스	3/21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4박스	0
3/22	푸드뱅크	만두	1박스	3/21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1박스	0
3/22	푸드뱅크	빵	4박스	3/21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4박스	0
3/22	푸드뱅크	만두	1박스	3/21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1박스	0
3/22	무명	쌀10kg	2포대	3/23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2포대	0
3/22	푸드뱅크	구연산	80kg	3/23	환경미와	삼미 및 무료급식소	5kg	75kg
3/22	무명	쌀10kg	2포대	3/23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2포	0
3/23	무명	쌀20kg	3포대	3/24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3포	0
3/23	이성혜	천혜향	8박스	3/24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8박스	0
3/23	결핵협회	깍참	6박스	3/24	아침간식	거리노숙인	6박스	0
3/25	영락교회	덴탈마스크	2000개	3/26,27,28,29,30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각400개	0
3/26	노아	돼지고기	100kg	3/27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34kg	66kg
				3/28,29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각33kg	0
3/26	노아	소고기	20kg	3/30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20kg	0
3/26	노아	불고기용돼지고기	50kg	3/31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50kg	0
3/26	푸드뱅크	빵	4박스	3/27	아침간식	거리노숙인	4박스	0
3/26	푸드뱅크	만두	1박스	3/27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1박스	0
3/27	무명	쌀20kg	2포대	3/28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2포	0
3/30	무명	식자재	3박스	3/31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3박스	0
3/30	이성혜	포도	10박스	3/31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10박스	0
3/31	이혜란	쌀10kg	2포대	4/1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2박스	0



㈜이스타파트너스(50,000)	㈜점나(50,000)	㈜창세에스엔티(50,000)	갓피플웨딩(50,000)	강도숙(10,000)	강영미(10,000)
강미정(10,000)	강석우(50,000)	강선숙(20,000)	강성애(5,000)	강순옥(10,000)	강연정(3,000)
강영철(40,000)	강은순(10,000)	강인순(50,000)	강일화(20,000)	강현미(20,000)	계영산업(50,000)
계용돈(30,000)	고건화(10,000)	고남균(10,000)	고영희(1,000)	고영희(10,000)	고정숙(10,000)
공혜림(5,000)	곽상미(10,000)	구남진(20,000)	구종해(5,000)	권민정(30,000)	권병훈(30,000)
권정아(10,000)	권태준(10,000)	권혁천(10,000)	권희규(30,000)	길상임(10,000)	김경화(10,000)
김고은(10,000)	김광천(10,000)	김귀남(30,000)	김기열(3,000)	김동관(30,000)	김동균(50,000)
김동만(50,000)	김동영(10,000)	김명숙(10,000)	김명순(10,000)	김문숙(10,000)	김미라(10,000)
김마숙(10,000)	김미영(10,000)	김미희(10,000)	김민경(30,000)	김민영(10,000)	김베드로(10,000)
김보연(30,000)	김보연(5,000)	김복자(10,000)	김부녀(30,000)	김선명(100,000)	김선미(1,000)
김선아(10,000)	김선아(10,000)	김선우(10,000)	김선화(10,000)	김성란(20,000)	김성만(20,000)
김성주(100,000)	김성해(5,000)	김성호(10,000)	김소라(10,000)	김소연(40,000)	김소재(5,000)
김수경(10,000)	김수경(10,000)	김수영(20,000)	김수현(30,000)	김수복(20,000)	김순복(10,000)
김순애(10,000)	김순애(10,000)	김순희(30,000)	김영생(5,000)	김영성(5,000)	김영숙(5,000)
김영숙(10,000)	김영숙(10,000)	김영숙(10,000)	김영숙(10,000)	김영순(10,000)	김영인(1,000)
김영인(50,000)	김영주(30,000)	김영진(10,000)	김영진(40,000)	김오래(10,000)	김옥경(20,000)
김용기(10,000)	김원희(10,000)	김은경(10,000)	김은주(5,000)	김은혜(100,000)	김의환(5,000)
김일행(20,000)	김재동(30,000)	김재정(50,000)	김정기(20,000)	김정순(10,000)	김정화(20,000)
김종미(10,000)	김종선(2,000)	김주애(20,000)	김지아(10,000)	김지은(20,000)	김지현(30,000)
김진아(5,000)	김창영(10,000)	김현희(50,000)	김태조(10,000)	김태훈(5,000)	김한나(5,000)
김향숙(10,000)	김향순(5,000)	김현미(10,000)	김현옥(100,000)	김현재(30,000)	김혜린(20,000)
김혜린(5,000)	김혜원(30,000)	김호년(30,000)	김홍주(30,000)	김효정(20,000)	김희석(5,000)
김희숙(30,000)	김희재(10,000)	김희정(10,000)	나영미(20,000)	나주열(10,000)	나지용(5,000)
남기국(10,000)	남혜경(20,000)	노순경(100,000)	노은실(10,000)	노한준(30,000)	라미영(30,000)
류명순(5,000)	류화정(10,000)	명은재(10,000)	명주현(10,000)	무명(30,000)	무명(30,000)
문경자(5,000)	문상철(10,000)	문수민(100,000)	문혜영(10,000)	민경희(30,000)	박경근(30,000)
박경옥(10,000)	박경화(10,000)	박관택(30,000)	박명희(5,000)	박미경(10,000)	박민선(10,000)
박민숙(10,000)	박민정(20,000)	박배근(10,000)	박봉선(10,000)	박상신(10,000)	박서애(10,000)
박서운(20,000)	박서윤(20,000)	박성영(30,000)	박소연(20,000)	박숙화(5,000)	박순영(10,000)
박시용(15,000)	박양미(4,000)	박영배(50,000)	박영자(20,000)	박은진(100,000)	박은진(300,000)
박은혜(20,000)	박은혜(10,000)	박인권(20,000)	박자연(50,000)	박정순(20,000)	박종호(10,000)
박진철(10,000)	박찬국(30,000)	박창관(10,000)	박채연(50,000)	박철모(10,000)	박한숙(100,000)
박현미(20,000)	박현주(10,000)	박효숙(20,000)	백규진(50,000)	백창미(5,000)	백현미(10,000)
백현숙(10,000)	사순화(10,000)	사재신(20,000)	서동선(10,000)	서상숙(20,000)	서정국(50,000)
서지연(10,000)	서혜원(20,000)	석영란(10,000)	석진혁(30,000)	성기빈(40,000)	성남시청신우회(30,000)
성준호(10,000)	성찬영(50,000)	손경순(30,000)	손석원(20,000)	손성미(2,000)	손요셉(10,000)
손진아(10,000)	송경자(30,000)	송규화(50,000)	송상산(10,000)	송재린(10,000)	송정우(30,000)
송정은(10,000)	송지영(10,000)	신순재(100,000)	신승우(50,000)	신영주(10,000)	신정용(20,000)
신현숙(10,000)	신호래(10,000)	신희진(20,000)	심사령(10,000)	심수현(10,000)	심영경(30,000)
안강희(3,000)	안경모(30,000)	안신미(10,000)	안유진(20,000)	안주백(10,000)	안호철(10,000)
안훈숙(10,000)	안희영(10,000)	양미란(50,000)	양성숙(10,000)	양성진(20,000)	양수정(30,000)
양의문교회남전도회(30,000)	양재희(10,000)	양현아(20,000)	여인귀(30,000)	염영태(5,000)	(김포)예수사랑교회(30,000)
오재원(10,000)	오점곤(100,000)	오진숙(5,000)	용기숙(50,000)	우창훈(40,000)	우홍균(10,000)
원남숙(10,000)	원상희(5,000)	유미선(3,000)	유부자(10,000)	유선옥(10,000)	유성옥(10,000)
유운주(10,000)	유아래(10,000)	유인규(20,000)	유정모(20,000)	유지영(5,000)	유지영(10,000)
유지현(30,000)	유현숙(10,000)	유혜림(5,000)	유화연(10,000)	윤두원(10,000)	윤상길(5,000)
윤상철(10,000)	윤상훈(5,000)	윤예강(10,000)	윤예은(10,000)	윤인초(10,000)	윤정민(50,000)
윤정희(5,000)	윤혜경(100,000)	윤혜림(10,000)	윤화숙(30,000)	은미선(100,000)	이강섭(20,000)
이강혁(10,000)	이건호(50,000)	이경수(10,000)	이경진(10,000)	이관호(20,000)	이광옥(2,000)
이귀남(30,000)	이금복(10,000)	이기문(2,000)	이동욱(10,000)	이방훈(50,000)	이병기(10,000)
이복자(30,000)	이산록(20,000)	이선미(20,000)	이선영(50,000)	이성호(10,000)	이수민(10,000)
이순아(10,000)	이순주(20,000)	이순주(10,000)	이승연(3,000)	이승연(10,000)	이승민(10,000)
이승은(30,000)	이승재(10,000)	이애희(10,000)	이영록(30,000)	이영미(30,000)	이영석(100,000)
이영숙(200,000)	이영희(20,000)	이옥경(50,000)	이원우(3,000)	이윤미(30,000)	이윤미(10,000)
이윤희(10,000)	이은숙(10,000)	이은혜(50,000)	이의화(10,000)	이재형(10,000)	이정은(10,000)
이재호(10,000)	이종수(40,000)	이종훈(50,000)	이주이(20,000)	이지숙(10,000)	이지훈(50,000)
이진실(100,000)	이찬의(50,000)	이창식(20,000)	이창호(50,000)	이현주(20,000)	이현희(10,000)
이혜경(10,000)	이혜성(5,000)	이홍총(30,000)	이희정(10,000)	임경희(10,000)	임경희(20,000)
임미향(20,000)	임미희(10,000)	임상귀(10,000)	임수연(10,000)	임영미(2,000)	임영환(30,000)
임정화(10,000)	임진옥(30,000)	임혜순(30,000)	임화경(30,000)	장소영(10,000)	장순녀(20,000)
장순희(5,000)	장승아(10,000)	장영희(10,000)	장용훈(100,000)	장현숙(30,000)	전금자(30,000)
전선형(5,000)	전애영(20,000)	전영신(100,000)	전재국(10,000)	정현숙(30,000)	전성희(5,000)
정태영(20,000)	정두섭(10,000)	정문호(10,000)	정미경(20,000)	정광덕(50,000)	정덕규(20,000)
정덕재(40,000)	정두래(10,000)	정두섭(10,000)	정문호(10,000)	정민경(10,000)	정민용,김유미(100,000)
정성분(10,000)	정애리(20,000)	정영희(30,000)	정윤경(10,000)	정은희(10,000)	정의영(10,000)
정재호(40,000)	정재희(30,000)	정종근(50,000)	정진숙(10,000)	정희지(20,000)	조경찬(50,000)
조경희(10,000)	조광남(10,000)	조광현(10,000)	조광희(10,000)	조민화(30,000)	조성림(10,000)
조성원(10,000)	조수영(10,000)	조연희(20,000)	조운정(10,000)	조혜향(10,000)	주영훈(300,000)
주찬양교회(50,000)	지선옥(12,000)	지영자(50,000)	진미제(2,000)	참소망연합의원(50,000)	채송화(10,000)
채정임(10,000)	채지영(30,000)	천민정(10,000)	천정희(100,000)	최경선(10,000)	최귀영(10,000)
최금련(30,000)	최병수(30,000)	최상해(10,000)	최성근(50,000)	최영실(5,000)	최옥순(10,000)
최완희(100,000)	최원동(10,000)	최유리(10,000)	최윤구(20,000)	최임부(10,000)	최재휘(100,000)
최주덕(20,000)	최주혜(10,000)	최춘삼(10,000)	최춘호(30,000)	최혜정(10,000)	하천기(10,000)
한기숙(10,000)	한기윤,유영선(20,000)	한동기(50,000)	한미운(30,000)	한선중(5,000)	한지영(5,000)
한진현(10,000)	한진희(800,000)	한혜민(20,000)	허명수(10,000)	허인애(30,000)	현정은(10,000)
홍순경(20,000)	홍신숙(100,000)	홍영희(5,000)	홍유미(5,000)	홍제영(10,000)	홍주연(20,000)
홍진아(10,000)	황금애(10,000)	황보순(50,000)	황순분(20,000)	황정아(20,000)	황중문(10,000)
황희찬(20,000)					

오진숙(5,000)	용기숙(50,000)	우창훈(40,000)	우홍균(10,000)	원남숙(10,000)	원상희(5,000)	유미선(3,000)	유부자(10,000)
유선옥(10,000)	유성옥(10,000)	유운주(10,000)	유아래(10,000)	유인규(20,000)	유정모(20,000)	유준서(5,000)	유지영(30,000)
유지영(5,000)	유지영(10,000)	유지현(30,000)	유현숙(10,000)	유혜림(5,000)	유화연(10,000)	윤경미(5,000)	윤금복(10,000)
윤두원(10,000)	윤상길(5,000)	윤상철(10,000)	윤상훈(5,000)	윤예강(10,000)	윤예은(10,000)	윤원(10,000)	윤용석(10,000)
윤인초(10,000)	윤정민(50,000)	윤정희(5,000)	윤혜경(100,000)	윤혜림(10,000)	윤화숙(30,000)	윤화숙(30,000)	윤화영(1,000)
은미선(100,000)	이강섭(20,000)	이강혁(10,000)	이건호(50,000)	이경수(10,000)	이경진(10,000)	이경호(10,000)	이광미(100,000)
이관호(20,000)	이광옥(2,000)	이귀남(30,000)	이금복(10,000)	이기문(2,000)	이동욱(10,000)	이명숙(10,000)	이문정(10,000)
이방훈(50,000)	이병기(10,000)	이복자(30,000)	이산록(20,000)	이선미(20,000)	이선영(50,000)	이선호(10,000)	이성자(20,000)
이성호(10,000)	이수민(10,000)	이순아(10,000)	이순주(20,000)	이순주(10,000)	이승연(3,000)	이승은(30,000)	이승재(10,000)
이애희(10,000)	이영록(30,000)	이영미(30,000)	이영석(100,000)	이영숙(200,000)	이영희(20,000)	이옥경(50,000)	이원경(10,000)
이원우(3,000)	이윤미(30,000)	이윤미(10,000)	이윤희(10,000)	이은숙(10,000)	이은혜(50,000)	이의화(10,000)	이정일(10,000)
이재형(10,000)	이정은(10,000)	이재호(10,000)	이종수(40,000)	이종훈(50,000)	이주이(20,000)	이주희(50,000)	이준옥(110,000)
이지숙(10,000)	이지훈(50,000)	이진실(100,000)	이찬의(50,000)	이창식(20,000)	이창호(50,000)	이향순(50,000)	이현희(20,000)
이현주(20,000)	이현희(10,000)	이혜경(10,000)	이혜성(5,000)	이홍총(30,000)	이희정(10,000)	임경주(10,000)	
임경희(10,000)	임경희(20,000)	임미향(20,000)	임미희(10,000)	임상귀(10,000)	임수연(10,000)	임신희(10,000)	
임영미(2,000)	임영환(30,000)	임정화(10,000)	임진옥(30,000)	임혜순(30,000)	임화경(30,000)	장문심(100,000)	장민홍(10,000)
장소영(10,000)	장순녀(20,000)	장순희(5,000)	장승아(10,000)	장영희(10,000)	장용훈(100,000)	장윤정(10,000)	장인희(30,000)
장현숙(30,000)	전금자(30,000)	전선형(5,000)	전애영(20,000)	전영신(100,000)	전재국(10,000)	정경아(5,000)	정경호(30,000)
정광덕(50,000)	정덕규(20,000)	정덕재(40,000)	정두래(10,000)	정두섭(10,000)	정문호(10,000)	정미경(20,000)	정미소(10,000)
정민경(10,000)	정민용,김유미(100,000)	정성분(10,000)	정애리(20,000)	정영희(30,000)	정영희(30,000)	정윤경(10,000)	정은채(50,000)
정은희(10,000)	정의영(10,000)	정재호(40,000)	정재희(30,000)	정종근(50,000)	정진숙(10,000)	정해자(10,000)	정해진(10,000)
정현지(20,000)	조경찬(50,000)	조경희(10,000)	조광남(10,000)	조광현(10,000)	조광희(10,000)	조근정(10,000)	조미원(60,000)
조민화(30,000)	조성림(10,000)	조성원(10,000)	조수영(10,000)	조연희(20,000)	조운정(10,000)	조은영(10,000)	조혜원(10,000)
조혜향(10,000)	주영훈(300,000)	주찬양교회(50,000)	지선옥(12,000)	지영자(50,000)	진미제(2,000)	진순애(1,000)	
참소망연합의원(50,000)	채송화(10,000)	채정임(10,000)	채지영(30,000)	천민정(10,000)	천정희(100,000)	천주리(10,000)	
최경선(10,000)	최귀영(10,000)	최금련(30,000)	최병수(30,000)	최상해(10,000)	최성근(50,000)	최성미(20,000)	최수경(40,000)
최영실(5,000)	최옥순(10,000)	최완희(100,000)	최원동(10,000)	최유리(10,000)	최윤구(20,000)	최은숙(10,000)	최은주(10,000)
최임부(10,000)	최재휘(100,000)	최주덕(20,000)	최주혜(10,000)	최춘삼(10,000)	최춘호(30,000)	최현미(1,000)	최현숙(20,000)
최혜정(10,000)	하천기(10,000)	한기숙(10,000)	한기윤,유영선(20,000)	한동기(50,000)	한미운(30,000)	한미운(30,000)	
한선중(5,000)	한지영(5,000)	한진현(10,000)	한진희(800,000)	한혜민(20,000)	허명수(10,000)	허미(10,000)	허상익(30,000)
허인애(30,000)	현정은(10,000)	홍순경(20,000)	홍신숙(100,000)	홍영희(5,000)	홍유미(5,000)	홍재필(20,000)	홍정희(20,000)
홍제영(10,000)	홍주연(20,000)	홍진아(10,000)	황금애(10,000)	황보순(50,000)	황순분(20,000)	황은미(30,000)	황인숙(1